



■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방안을 발표하는 4개 단체 기자회견 예고보도(2018.11.29.)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개선안을 발표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12/3(월) 오전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이상 4개 단체는 12월 3일 월요일 11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거셉니다. 특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학생부 기록을 골간으로 하는 학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전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학교교육은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중심으로 회귀해서 우리 교육은 향후 10년 이상 깊은 수렁으로 빠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여기까지 이 흐름을 이어온 것입니다.

결국 학종을 유지하되 개선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게 고치고, 학교교육의 혁신을 받아내는 기록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서, 이 전형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오도록 국가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4개 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학종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국회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필수적이면서도 현실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학종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3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입제도로 거듭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방안을 발표하는 4개 단체 기자회견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일시 : 2018. 12. 3. 월요일 오전 11시
- 연대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2018. 11. 2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분창(02-797-4044/내선번호 511)